

벌목된 나무 인접에서 잔가지 작업중 나무가 구르면서 부딪힘

재 해 개 요

2018년 2월 강원도 주민 위해목 제거 작업 중, 벌목된 위해목 주변에서 잔나무 가지치기 등 주변 정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구르는 위해목에 머리부위를 맞아 사망.

재해관련사진



재해 발생전 작업 추정



재해 발생후 발견 모습

재해발생 원인

○ 중량물 작업,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고소작업대)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벌목 운반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 사전에 해당 작업의 사전조사를 하고 안전 조치기준(안전모,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,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, 인접 작업자 접근금지, 협착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등)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

○ 개인보호구 미착용

- 벌목에 의해 작업자의 머리 등이 다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개인보호구(안전모 등)를 지급 및 착용하여야 하나, 사고 현장에서 재해자는 개인보호구(안전모) 착용 미 실시

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중량물작업,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고소작업대)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벌목운반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 사전에 해당 작업의 사전조사를 하고 안전 조치기준(안전모,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,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, 협착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등)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

○ 개인보호구 착용

- 작업자의 머리 등이 다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개인보호구(안전모 등) 지급 및 착용